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07호 현대불교
2010년 10월 27일(음 9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모든 것을 여러분 마음의 근본에 되돌려 놔야 됩니다

울산의 여러분과 더불어 스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한자리 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일체 만물만생이 말은 하지 않아도 전부 우리의 스승 아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철 나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가지고 살고 너희들 맘대로 하고 살아라. 그러나 떠날 때는 너희 몸뚱이까지도 다 놓고 가거라. 이렇게 우리 인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야만이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놓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기간 동안에, 한 철 걸망 짊어지고 캠프 나와서 놀다가 헤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네 탓 내 탓을 다투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성질 때문에 집안이 흠뻑 망하는 수도 있고 파산이 되는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일체 만물만생도 역시 우리의 스승 아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흐르는 걸 봐도 그렇습니다. 물은 그 안에 만 생명을 넣고 굴림을 굴리면서 리드해 나가는데도 걸림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을 물끄러미 보고 있자면 '아, 물이 말을 하는구나! 물이 나같이 살라고 말을 하는구나!' 하게 됩니다. 산길을 걷다 보면 나뭇가지가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흔들립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도 그냥 길을 가듯이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저 나무들도 모두 자기와 같이 살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들이, 돌이나 산천초목들도 다 살아 있고 움직거리고 찰나찰나 화하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정신세계 50%에서 쉼 사이 없이 돌아가면서도 물질계의 50%와 더불어 같이 상응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생명들이, 그 모습들이 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들도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살림살이와 동물과 생물, 일체 만물의 살림살이가 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원만 다르고 모습만 다르다 뿐이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속에서 중생이 나고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니 어디 그게 돌이겠습니까? 만물만생이 다 나같이 살라고 한다면 나 또한... 그도 나도 모두가 나투면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니 돌이 아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 아니라. 이 모두가 돌이 아니니라. 모두가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 하셨는데 이것은 당신 혼자만 높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당신 아님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당신 아님이 없이 제자끔 높다는 겁니다. 농사꾼은 농사꾼대로 높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그림 최주현

높고 거지는 거지대로 높고, 일체 만물만생이 다 제자끔 높으니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래는 이름은 부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여러분이 부처요, 여러분이 그대로 쉬는 것도 없고 쉬지 않는 것도 없이 여여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자유자재로 살 수 있는 그 자체를 보고 여래의 집이라고 했다는 말이죠.

이 우주의 근본도 여러분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바로 근본에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그냥 여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교라는 의미는 만물만생의 생명, 그 근본이 불(佛)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일체가 다 같이 통하고 교류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교(敎)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그 자체는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돌아가는 진리인

것입니다. 모두 불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놓고 말입니다. 어떤 종교라 할지라도 각자 생명의 근본이 있고, 말을 해서 서로 교류하고 전달하면서 돌아가니 모두가 불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불교라는 이 자체는 너무나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없이는 세상에서 창조력을 기를 수도 없고 창조를 해낼 수도 없고 발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상대가 있고 잘못됐든 잘됐든 부딪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상대도 없고 부처도 없고 모두가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라. 너부터 알아서 너를 깨달아서 본다면 모든 중생과 부처가, 일체가 다 돌이 아닌 도리를 알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갑니까? 애고든 병고든 천차

만별의 문제가 닦치면 닦치는 대로 밖으로만 찾습니다. 명이 짧다 하면 칠성님한테 빌고, 가난하고 일이 생겼다 하면 관세음보살 부르고, 좋은 데로 못 간다 하면 지장보살 찾고, 병이 들었다 하면 약사보살 찾고, 물에서 위험할 듯 하면 용신을 찾고, 길을 가다가 위험할 듯하면 지신을 찾고... 여러분, 한마음을 가지고도 자유스럽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것을 오는 대로 어떻게 타의에다가 상대를 두고 법니까? 상대를 두고 빌어 봤자 공덕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결도 나지 않으며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발견해 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노예로서 세세생생 끄달리면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모든 것을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세상하고도 가설이 돼 있다 이겁니다. 우주간 법계의 근본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근본에 직결되고 가설이 돼 있던 애겁니다. 알기 쉽게 말을 하려니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군요. 그러니 병고가 오면 '아, 내 깊은 한마음 속에서, 바로 거기에서 병고도 나온 거니까 낮게 하는 것도 거기 아닌거. 네 시자를 네가 건강하게 끌고 다녀야지.' 하고 거기 놔야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또는 명이 짧다 하면 안에서 칠성이 됩니다. 금방 화해서 칠성 부처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면 한마디 할까요? 가정에서 살면서 때에 따라서 금방 아버지가 됐다, 금방 남편이 됐다, 금방 아들이 됐다, 금방 형이 됐다, 이렇게 아주 자동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보" 그러면 "왜 그래?" 하고 그 행동과 말과 뜻이 그대로 남편 노릇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다가도 "아버지!" 하면 금방 아버지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부처님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듯이 그대로 나투는 것입니다. 어떠한 애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놓을 때는 자동적으로 산신도 되고 칠성도 되고, 병고가 있어서 거기에 되돌려 놓을 때는 바로 약사가 되고, 좋은 데로 가지 못해서 놓을 때는 바로 지장이 되고... 그 한군데서 그렇게 일체 만법을 굴리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듬해서 수레공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거거다가 되돌려 놔야 됩니다. 내가 한번 비유를 해 볼까요? 오신통에 속명통이라는 게 있죠. 그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라고 말해도 됩니다. 물질적인 컴퓨터는 입력을

26면으로 계속

초판 22세의 스티디 셀러!!

10,000원 A5 / 287쪽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꿀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룸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애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쇠를 못하던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계승·선화의 집대성
-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펴낸 금강경(독송용)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펴낸 수경(한글/영어)